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음악

## 외부의 생각들을 폭넓게 수용했으면 한다

culture | art

최초 임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위원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혹시 신중하고 치열한 논의 끝에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개정 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 상정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해야겠지만 외부의 생각들을 폭넓게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민되는 모든 주제를 내걸고 심포지움과 세미나, 연구용역까지도 서슴없이 의뢰해야 한다.



홍승찬  
- 음악평론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에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모호한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이 시작 단계에 있었을 때의 뜨거운 관심을 생각한다면 지금에 와서 오히려 시큰둥하다는 느낌 때문이다. 시작 이후의 과정들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듯 싶더니 결국은 얼렁뚱땅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워낙 주어진 시간이 촉박했던 터라 더 이상 만전을 기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불가피했던 문제라면 사후의 과제로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다. 위원회의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했겠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아쉬움이 크다. 초기의 논의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했다면 추천위원회의 구성부터 예술위원회의 출범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워낙 촉박한 일정이라 그랬겠지만 추천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그렇게 확정지는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문화일반'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다섯이나 된다는 것도 아무래도 어설픈다. 스스로 후보로 나서거나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야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추천위원회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이제 지난 일을 두고 왈가왈부 한들 소용이 없을 터이고 그래도 이후의 대책을 주문하랴니, 뻔한 이야기라 하고 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전에 말하기를 아무리 급해도 절차의 하나하나를 꼼꼼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었다. 당연히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것이니 나머지 일은 위원회의 출범 이후로 넘기라고도 했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니 위원회의 출범 이전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과 이후에 해도 무방한 일을 확실하게 가려 후자에 매달려 전자에 소홀한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강조했다. 그때는 위원회 설립까지를 준비해야 할 문화관광부에 주문했었지만 같은 말을 이제 출범하는 예술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첫째도 여유, 둘째도 여유가 필요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부터 차근차근 따질 일이고 그렇게 순서를 정했으면 하나를 완전히 끝내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 두 번째 과제가 무엇이고 세 번째가 무엇인지는 위원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할 일이겠지만 누가 봐도 첫 번째 과제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런 기초와 토대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 이전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왔던 일상적인 업무들은 한시적으로 기존의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 주체넘지만 두 번째 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당장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예술위원회의 현장을 만들었으면 싶다. 그래서 위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다짐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최초 임기에 들어갈 예술위원회는 스스로의 틀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는 기존의 문예진흥원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대행토록 하는 과도기적인 체제를 감수해야 한다.

**최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 만큼, 준비위원회가 되어야**

위원회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면 다수결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문화일반을 대표하는 다섯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안이야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나머지 여섯 위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예술 각 장르의 문제들까지 위원회 전체의 표결로 가늠해야 한다면 실로 예기치 못한 결과가 거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일반을 대표하는 다섯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각자의 뚜렷한 전문 분야가 두드러지는 만큼 잠정적으로 그것을 대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통적인 여섯 장르에 관한 사안만큼은 해당 위원이 관장하는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하고 그렇다면 소속 위원 각각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수의 위력으로 의사 결정의 당위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전문영역별로 한 사람의 위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이 바람

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벌어질 독단과 오류를 경계하기보다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사명감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지 만큼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그것이 다수의 결정이 가지는 모호함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최초 임기의 예술위원회는 예술위원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혹시 신중하고 치열한 논의 끝에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개정 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 상정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해야겠지만 외부의 생각들을 폭넓게 수용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고민되는 모든 주제를 내걸고 심포지움과 세미나, 연구용역까지도 서슴없이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과정들을 낱알이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고 무엇을 얼마나 고민하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헤아려야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만큼 믿음직한 분들이 오죽 잘 알아서 하실 일들을 놓고 괜한 걱정을 두서 없이 늘어놓는 것 같아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